

시설 잿빛곰팡이병, 한 번 발생하면 대응 어렵다!

‘가5’ 새로운 작용기작의 ‘미기와’
침투이행성 뛰어난 ‘벨리스플러스’

시설 하우스 내 다습한 환경에서 다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잿빛곰팡이병은 잎, 줄기, 과실 등에 포자로 신속히 전염되어 조직을 부패시키며, 한 번 발생하면 병반 표면에 수많은 포자를 형성해 2차 감염을 유발함으로써 농가 생산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난방제 병해다.

특히 잿빛곰팡이병은 저항성 발현이 쉬워 동일한 계통의 약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경농은 교차저항성이 없는 신규물질 ‘미기와’ 액상수화제와 광범위 종합 살균제 ‘벨리스플러스 입상수화제’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차 방제 솔루션을 제시했다.

‘미기와’, 신물질·신규 작용기작으로 2차 전염 원천 차단
‘미기와’ 액상수화제는 작용기

작 ‘가5’ 살균제다. 병원균의 핵산(DNA) 합성을 교란하여 성장과 증식을 신속히 억제하며, 기존 살균제들과 교차저항성이 없어 저항성이 형성된 포자에서도 안정적 약효를 발휘한다.

뛰어난 침투이행성과 침달성을 갖추어 포자로 전염되는 잿빛곰팡이병의 1차 감염 예방은 물론, 2차 전염원인 포자 형성을 강력히 억제해 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주요 작물의 잿빛곰팡이병에 등록되어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우수한 침투이행성과 넓은 스펙트럼, 종합 살균제 ‘벨리스플러스’

‘벨리스플러스 입상수화제’는 서로 다른 계통의 두 성분이 결합된(다2+다3) 광범위 종합 살균제다. 뛰어난 침투이행성으로 약액이 직접 닿지 않은 부위까지 고르



▲경농 제공

게 약효를 전달하며, 침달성이 뛰어나 잎 윗면에 살포해도 잎 전체에 방제 효과가 발현된다. 잿빛곰팡이병은 물론 탄저병, 균핵병, 잎마름병 등 시설작물의 주요 병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작물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도 우수하며 대부분의 진균성 곰팡이 병해에 활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주)경농 제품개발팀 남윤정 PM

은 “시설 하우스 내 잿빛곰팡이병은 초기 방제 실패 시 연속적인 2차 감염으로 이어져 피해가 대형화되기 쉽다”라며, “새로운 작용기작의 ‘미기와’로 포자 형성 및 병 확산을 차단하고 ‘벨리스플러스’를 교대로 살포하여 저항성 걱정 없이 시설 과채류의 잿빛곰팡이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KREI, 식량안보 위기 4단계 대응체계 제안

‘식량안보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밝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식량안보 위기를 공급 부족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REI는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 체계 구축(2/2차년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식량안보 위기가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수출 제한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기반으로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식량 공급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비용 최소화를 중심으로 한 최적화 모형을 구축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열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증산 전략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요 곡물 수입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 일정 수준의 칼로리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리와 콩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식량 위기는 공급 부족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0~3단계로 구분했다.

정량적 기준으로 공급량이 평년보다 20% 이상 감소하면 2단계, 1인당 하루 공급 열량이 1천850kcal 아래로 떨어지면 3단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0단계에서는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1~2단계에서는 출하·판매 조정과 수입 촉진을 추진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3단계에서는 국민 필요 열

량을 고려한 증산과 공정한 배분, 가격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범정부 대응체계도 제시했다. 1~2단계에서는 ‘식량 위기 대응위원회’를, 3단계에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식량 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해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평소 식량 비축시설과 비축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식량 위기 대응 기금’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정기적인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과 생산자, 민간업계의 역할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승준호 KREI 부연구위원은 “식량안보는 위기 발생 후 대응하기보다 평상시부터 단계별 위기 수준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지와 생산기반 유지, 전략적 비축 확대와 함께 실제 위기에 작동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국산 감초 우량 신품종, 보급 넘어 산업화로 잇는다

금산서 감초 신품종 산업 활성화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충남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농유원 다목적교육장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김대현, 이하 원예원),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감초 신품종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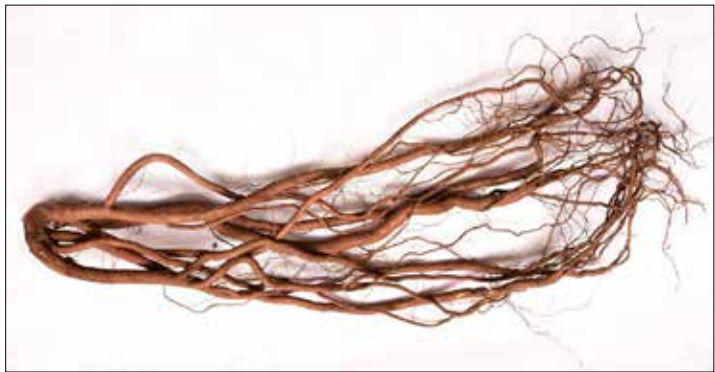
이번 간담회는 국산 감초 신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생산 기반과 기업 수요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촌진흥청과 농진원, 지방정부, 관련 단체, 기업, 농가 등 50명 내외가 참여하여 지역별 산업화 전략을 공유하고 감초의 생산부터 가공·판매까지 이어지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초는 한약재와 건강기능식

품 등의 원료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약용작물이지만, 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생산 기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 재배 환경에 적합한 감초 신품종 ‘원감’과 ‘다감’이 2016년 개발됐으며, 2023년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되면서 국내 의약품 및 식품 원료로 활용



▲원감. 농진원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한민국약전 등재 이후에는 신품종을 실제 농가와 산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제천에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는 평창과 평택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는 금산·제천·평택·임실의 지

역별 산업화 전략을 공유하고 기업의 원료 수요를 농가의 계약재배와 연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약용작물 산업 진단 및 활성화 방안(도모 김용 대표) ▲감초 신품종 주요 특성 및 시장 동향(원예원 이정훈 연구관) ▲약용작물 신품종 보급 확대 계획(농진원 김종규 팀장)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금산·제천·평택·임실은 지역별 감초 산업화 전략을 공유하고, 관련 기업은 감초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판매 현황을 소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단체, 기업, 농가가 함께 ▲신품종 보급 확대 ▲기업과 농가의 계약재배 ▲가공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 등을 논의하고, 기업의 원료 수요를 생산에 반영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는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국산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농가 현장서 생산성 확인

기존 품종보다 건물수량 각각 9.1%, 14.3% ↑



▲왼쪽부터 스파이더·오아시스

국산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신품종인 ‘오아시스’와 ‘스파이더’가 기존 보급 품종보다 사료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 농가 재배지에서 두 품종을 실증한 결과, 조생종 오아시스와 중생종 스파이더의 건물수량이 대표 보급 품종인 ‘코원어리’보다 각각 9.1%, 14.3%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는 경남 고성 재배지에서 1헥타르당 1만800kg의 건

물수량을 기록했다. 건물수량은 수확한 작물에서 수분을 제외한 실제 사료 생산량이다. 스파이더는 경기 이천에서 1헥타르당 1만2,000kg을 생산했다.

고성에서는 가을에 파종해 이듬해 5월 초 수확했으며, 이천에서는 봄에 파종해 5월 하순 수확했다. 서로 다른 지역과 파종 조건에서 두 품종의 농가 생산성을 확인한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천안 시험재배지에서 시험한 중생종 ‘아우

라’도 1헥타르당 약 1만3,700kg의 건물수량을 기록했다. 이는 수입 품종인 ‘플로리다 80’보다 약 15% 많은 수준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으로 충남 논산과 경기 이천 등에서 아우라의 농가 현장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진아 기자
mida0210@naver.com



1998년 10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대 0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 02-582-4016 팩스 : 02-582-4002
광고신청 전화 : 02-582-4016
이 메 일 press@nonguetimes.com
홈페이지 www.nonguetimes.com
자 매 지 농업경제
발행간·편집장 김대경 | 인쇄인 이정자
국독신청·배달안내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90,000원
농협은행 301-0328-9561-51 (주)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행복한농촌, 함께하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